

1940년대 전반기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쏟으신 불멸의 업적

강 래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대 전반기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전인민적봉기와 배후련합작전을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속에 결합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것을 조국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혁명무력과 전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려는 이 구상에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성장해온 우리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몇몇 선각자나 투사들의 힘만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없다는것은 세계혁명운동사의 총화인 동시에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사의 교훈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을 시작한 첫날부터 시종일관 전민항쟁을 주장해오시였으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던 1940년대 전반기에는 간백산에 꾸려진 강습소를 통하여 지방조직들에서 단련된 사람들을 선발하여 전민항쟁에 필요한 지도핵심들을 많이 육성하는 한편 북부지대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곳에 반군사조직들을 더 많이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김일성동지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8권 34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시면서 특별히 주목을 돌리신 문제는 국내에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전민항쟁의 군사정치적거점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새로운 립시비밀근거지들을 꾸리고 국내에 더 많은 소부대들과 소조들,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민항쟁력량을 조국해방작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국내의 전민항쟁력량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전민항쟁의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1940년대 전반기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새로운 전략적단계의 과업을 능히 맡아 수행할수 있는 주체적력량과 핵심준비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전민항쟁이란 전민을 혁명화하여 항일혁명에 총동원시킨다는 뜻이였다. 다시말하여 온 나라, 온 민족을 망라하는 거족적이며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반일항전으로 나라의 해방을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전민항쟁으로 일제를 타도하자면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을 정치적으로뿐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였다.

간백산밀영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전민항쟁을 위한 핵심육성기지로

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민항쟁준비에서 핵심골간육성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간백산밀영에서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강습을 진행하게 하시였으며 여기에 정치공작원들과 국내혁명조직들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참가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멀리 중부조선, 남부조선일대에서 온것으로 하여 생활경위와 가정주위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다고 하면서 대상자선발에서 제외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강습소의 과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잘 습득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여 파견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1(1942)년 6월 간백산밀영강습소를 찾으시여 핵심파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일군들에게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치활동과 군사훈련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이라면 그를 추천해보낸 조직을 믿고 파견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강습생파견에서 출신지역에 파견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역에서 이미 로출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보내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시고 혁명동지들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 대하시는 김정숙동지께서만이 세워주실수 있는 정확한 대책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부대, 소조에 망라시킬 대상자선발사업도 전인민적반일항전으로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간백산밀영에서 파견된 핵심들은 전국각지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반일대중속에 들어가 합법적 및 비합법적항쟁조직들을 내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핵심성원들은 국내의 주요전략적지대에 꾸려진 비밀근거지의 전민항쟁무장조직성원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원으로 파견되거나 무장대들을 지도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핵심들을 많이 키워 그들을 국내 각지에 파견하는 사업도 주동적으로 대담하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 시기 북부조선일대에는 탄광, 광산, 목재소, 수력발전소공사장이 집중되어있었으므로 이곳에는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로동자들이 많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부터 무산, 연사지구를 비롯한 북부조선일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튼튼히 꾸릴것을 구상하시고 일제에게 강제로 끌려와 일하고있는 로동자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속에서 핵심들을 선발하여 국내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혁명조직을 전국적판도로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3(1944)년 7월 조국광복회 서두수지회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지회앞에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며 수많은 핵심들을 국내 각지에 파견할 방도와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이미전부터 김정숙동지의 지도를 받으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서두수지회는 태업과 구조물, 설비파괴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파업투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무장봉기계획까지 추진시켜나가고있었다.

그런데 당시 일제는 태평양전쟁과 중일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탕진한데다가 로동자들의 거세찬 투쟁으로 하여 서두수수력발전소공사를 진척할수 없게 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노동자들을 다른 공사장으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이것으로 혁명군중이 일시에 해체될 정황이 조성되었다.

서두수지회의 조직성원들이 부닥친 정황에 대처하여 정확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모대기고있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지회의 핵심성원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수록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해결방도를 찾을줄 알아야 하며 문제를 좁은 테두리에서 생각할것이 아니라 전반적범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제놈들이 노동자들을 다른 공사장에 끌고가 군사적으로 더 급한 모퉁이를 메꾸는 한편 우리의 단결된 혁명력량을 분산약화시키려고 기도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투쟁경험을 쌓은 조직성원들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양훈련하고 준비시켜 여러 지역에 내보내어 그들이 다른 공사장에 가셔도 대중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고 선봉적역할을 하게 한다면 우리는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수많은 핵심들을 광활한 지역에 파견하는것으로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후 서두수수력발전소공사장에서는 조직성원들과 혁명화된 많은 노동자들이 전민항쟁의 불씨를 안고 전국각지에 퍼져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서두수지회뿐만아니라 무산광산과 백무선철길공사장, 무산, 연사지구의 채벌장, 류벌장들에서도 핵심을 육성하여 국내 각지에 파견하도록 하시었다.

무산, 연사지구의 혁명조직들은 북부조선과 중부조선일대뿐만아니라 남부조선일대에까지 수많은 핵심들을 파견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1940년대 전반기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진공과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반일항쟁을 결합할 무장조직들을 더욱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었다.

전민항쟁무장조직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에 배합하여 적을 배후에서 타격하며 전민항쟁에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안받침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2(1943)년 7월 중순 중성군 화방면 룡야동(당시) 곰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 및 지하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국적범위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인민무장대조직의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었다. 그리고 이듬해 7월 또다시 국내에 진출하시여 부령군 부거면 부거동 판장림시비밀근거지에서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을 확대강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투쟁속에서 단련된 노동자, 농민출신의 청년들을 기본으로 하고 일제의 강제징집을 피하여 은신해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애국적청장년들로 여러가지 명칭의 무장대오를 널리 조직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무산과 연사, 삼장지구혁명조직들이 무산광산과 서두수수력발전소공사장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된 건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생산유격대, 노동자돌격대와 같은 무장조직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 시기 김정숙동지의 지도를 받으며 무산광산 청년노동자들로 무어진 백의사라는

항쟁조직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로 진공할 때 그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광산을 적들의 파괴로부터 보위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내세우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 서두수지회에서든 청년들로 노동자돌격대를 시급히 조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노동자돌격대가 일상시에는 혁명조직을 무장으로 보호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이 총공격을 개시하면 후방에서 무장폭동과 파괴공작으로 그에 호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이 만들어놓은 《자위단》과 훈련소들을 역이용하여 반군사조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시였다.

혁명조직들에서는 《자위단》을 《공산비적경제》와 《통비분자색출》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을 지원하는데 리용하면서 대담하게 적의 소굴인 훈련소에 침투하여 청년들을 교양개조하여 전민항쟁력량으로 준비시켜나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징병》이나 《징용》에 걸려 몰래 산속으로 도망치고있는 청년들도 일정하게 반일의식도 있는것만큼 그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왜놈에게 끌려가 죽지 말고 우리 북선빨찌산으로 오라.》, 《총잡고 싸우는것만이 살길이다.》라는 글을 써놓기도 하고 그들을 적극 찾아내어 인민무장대에 인입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무산, 연사지구의 소부대, 소조, 혁명조직들이 무장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노동자돌격대, 생산유격대 등 반군사조직들과 여러가지 명칭의 무장항쟁조직들이 무어저 활발히 움직이게 되였다.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국내 항쟁운동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할수 있는 령도기관을 꾸리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조직한 연사지구당위원회를 비롯하여 1930년대말부터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꾸려진 당소조들과 반일대중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할 사명을 지닌 지구당위원회들이 태어나 지역적령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평안남도일대에서 조직되어 활동한 지구당위원회는 평양, 개천, 남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당소조를 두고있었으며 이 당소조들을 통하여 도내 각지의 조국광복회조직들과 전민항쟁조직들을 지도하였다. 함경북도에 조직된 청진지구 당위원회는 일철을 중심으로 청진지구의 공장들에 수많은 당세포들을 두고있었다.

이처럼 1940년대 전반기 국내에서는 전민항쟁세력이 급격히 장성하여 1942년 일제가 탐지해낸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고 조직적력량이 50만이 넘는다고 하였다. 적들에게 로출되지 않은 조직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1940년대 전반기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무장조직들이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전인민적무장봉기를 주도할수 있는 기본력량으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격하면 우리도 들고일어나서 왜놈들에게 철추를 내리자, 죽든살든 결단을 내자, 이것이 그때의 민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장조직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군사훈련을 계통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성원들이 여러가지 유격전술을 충분히 체득하고 능숙히 활용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반군사조직들이 무장을 튼튼히 갖추고 유리한 지역들에 비밀훈련

장소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군사훈련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연사지구에 조직된 생산유격대, 노동자돌격대는 일제의 무기를 빼앗고 폭탄을 제조하면서 무장을 자체의 힘으로 더 늘여나가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장대오를 늘이고 무장장비를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모든 무장대원들이 각종 무기에 정통하고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유격전법을 체현하도록 훈련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시 연사면과 삼사면의 경계지대인 대도등판은 생산유격대, 노동자돌격대를 비롯한 인민무장대의 훈련장소로 리용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곳 지형은 유인매복전술과 같은 유격전법을 배워주는데 불리하다고 지적하시고 훈련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택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장조직성원들의 훈련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지휘성원들의 군사정치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시고 훈련에 참가한 모든 성원들이 짧은 기간에 자기앞에 부과된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수 있게 하시였다.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조직들의 활동에서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극복하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전민항쟁을 보다 조직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5월 급격히 변화되는 적정과 관련하여 증산일대에 무장대지휘부를 내오도록 하시고 무장대지휘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무장대지휘부의 기본임무는 종성, 온성, 회령 등 증산주변의 여러 지역에 조직된 인민무장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 적들의 새로운 군사적기도를 정확히 알아내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후방교란작전을 맹렬히 벌리며 조국해방작전이 개시될 때 두만강하류의 적요새구역을 격파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호응합세하여 이 지역에서 배후련합작전을 완강하게 벌림으로써 증산일대를 지령점으로 하여 끝까지 저항해보려는 적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일격에 완전히 소탕해버리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장대지휘부가 이러한 전투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지휘부와 매개 무장대들사이의 지휘체계, 혁명조직들과의 연락체계 등도 미리 잘 세우고 무장대지휘부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지휘부와와의 통신연락도 기동적으로 보장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정확한 정황판단과 그에 대처한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대책은 그후의 사태발전에서 뚜렷이 확증되였다.

일제는 패망의 운명에 직면하자 1945년 5월말 두만강연안 증산일대를 제놈들의 제 17방면군과 관동군부대들의 작전지대로 정하고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때 증산일대에서 활동하던 무장조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지휘밑에 주도세밀하게 세워진 작전계획에 기초하여 통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적들의 새로운 기도를 분쇄하였다.

청진지구에서 활동하는 전민항쟁조직들도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지상과 해상으로부터의 공격작전에 합세하여 청진일대를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제의 전시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한 투쟁에서 무장조직들이 앞장

에 서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지도를 받은 무산광산 백의사를 비롯한 무장조직들에서는 일체의 전시 생산과 군수품조달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적들의 무기를 빼앗고 폭탄을 만드는 등 무장폭동에 필요한 물질적준비를 갖추어나갔다. 그리고 창평비밀근거지일대에서 활동하던 생산유격대는 백두산근거지에 식량과 군복천, 부식물 등 후방물자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다.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국내 각지에 혁명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전민항쟁태세가 철저히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할수 있는 주체적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준비되어나갔다.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확대강화된 전민항쟁조직들은 최후공격작전수행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훈용 마유산일대의 인민무장대는 적의 화약고와 포탄, 탄약야적장을 폭파함으로써 전반적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회령지방의 까치봉무장대는 퇴각하는 적들을 소탕하고 화약고와 연유창을 폭파하였으며 회령시를 자체로 해방하였다. 라진, 성진도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인민무장대에 의하여 해방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길우에는 적구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과감하고도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신 백두의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대학생들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받들어 쌓아올리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전민항쟁, 무장봉기